

# 유가 상승에 '정유 빅4' 성적표 'A'... 영업익 2조 돌파

**정유업계 2분기 실적**

**SK이노** 석유 실적 견인 8516억  
**에스오일** 재고 이익 포함 4025억  
**현대오일뱅크** 래킹효과 등 3136억  
**GS칼텍스** 재고이익 증가 5846억



국내 정유 빅4가 정제마진 하락 속에서도 유가상승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

내 정유 빅4의 올 2분기(4~6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총 2조1524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80억원, 영업이익 8516억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정유·비정유부문 모두 고루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1분기에는 화학제품 스프레드 강세로 화학사업 중심의 비정유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면, 2분기에는 정제마진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 및 IMO2020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거둔 석유사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오일은 2분기 매출액 6조31억원, 영업이익 402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전분기 대비 배럴당 1.5달러 하락했음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약 1700억

원이 반영됐다.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5조4532억원에 영업이익 3136억원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래킹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 증가 영향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S칼텍스는 매출액 9조579억원, 영업이익 5846억원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와 1분기에 실시한 정기보수가 4월 중 마무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2분기 판매물량에 따른 결과다.

정유 4사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난 1분기(1~3월)보다 좋은 실적을 냈다. 국제 유가 상승 덕분에 재고이익 효과를

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3분기에도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분기에 급격하게 하락한 정제마진의 경우 오름세를 지속 보이고 있다. 높은 정제마진은 곧 정유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계절적 수요 증가와 미국 업체들의 정기보수로 인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형모 이베스트 애널리스트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대한 수요 호조와 중국 티팟업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가동을 하향으로 수급 타이트가 예상된다"며 하반기 정제마진이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40%대 고도화율 달성... 초고도화시대 연다”

**현대오일뱅크 SDA 공정 완공**  
 경유·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생산 ↑



SDA공정 전경.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정유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SDA(일산 8만 배럴) 공정을 완공했다고 12일 밝혔다.

SDA는 잔사유에 프로판, 부탄, 펜탄 등 용매를 혼합해 아스팔텐 성분을 제거한 후 DAO(De-Asphalted Oil)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DAO를 고도화 설비 원료로 투입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달부터 정유설비와 고도화설비 증설 마무리작업도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중순 증설작업이 완료되면 일일 정제능력은 56만 배럴(현대케미칼 일산 13만 배럴 포함)에서 65만 배럴로

고도화설비 용량은 하루 16만 5000 배럴에서 21만 1000 배럴까지 늘어난다.

고도화설비 용량과 단순정제능력 간 비율을 나타내는 고도화율은 40.6%까지 높아진다. 국내 정유사 중 40%대 고도화율을 달성하는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다.

SDA 및 고도화설비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고유황 중질유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경질유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중동산 원유보다 고유황 중질유 성분이 많아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초중질 원유도 더 투입할 수 있다. IMO규제가 강화되면 중동산 원유와 초중질 원유의 가격차는 더 벌어져 초중질 원유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로 인한 정제마진 개선효과가 연간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SDA공정에서 생산되는 DAO는 고도화설비 뿐 아니라 윤활기유,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존 공장 증설작업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KT 직원들 및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 KT, 브라질서 5G 기반 IoT 기술시연

국가통신연구소 직원 대상 세미나  
 5G 기반 IoT 실증 단지 구축 협력도

KT가 9일~10일(현지시간) 양일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산타리타시에서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5G 및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시연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한국-브라질 IT협력센터를 통한 공동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한-브라질 IT협력센터는 2017년 개소해 3년간 브라질 정보화 프로젝트, 시험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4월 열린 제2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5G,

LTE와 IoT를 활용한 실증 환경 구축 사업을 위해 추진할 과제로 선정하고 수행 기업으로 KT로 선택했다.

KT는 이번 세미나에서 평창에서 선보인 5G 네트워크 통신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알렸다. KT의 미래융합사업 중 커넥티드 드론과 기상센서 등 최첨단 IoT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브라질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해 커넥티드 드론을 통한 영상 전송과 IoT 기상 상태 측정 기술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KT는 이후 브라질 국가통신연구소와 5G와 LTE 네트워크 기반 IoT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브라질에 5G 기반 IoT 실증 단지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유플러스**  
 5G 구현 가상화 플랫폼  
 통신사 최초 'OVP' 인증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가상화(NFV) 플랫폼에 대해 통신사 최초로 개방형 플랫폼 인증 프로그램(OVP)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OVP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그룹인 OPNFV에서 정의한 기능과 검증의 업계 기준치를 제공한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무중단, 자동 복구, 신속한 신규 서비스 제공 등 215개 항목의 기준을 통과한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 OPNFV가 OVP 인증을 발급한다. 기업용 가상화 플랫폼(명칭 LTE 기업전용망 서비스)이 인증 대상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엔 확보한 테스트 역량과 솔루션을 국내 장비회사들에게 공유해 국내 가상화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내 장비회사들이 가상화 플랫폼이 운영될 환경에서 직접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마곡LG 사이언스파크내에 네트워크는 물론 서버 등 장비, 자동화된 검증 툴 등을 갖췄다.

또 LG유플러스는 내년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5G에서 구축하는 모든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서도 OVP를 적용해 안정성 검증은 물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 “T로밍 개편으로 로밍 요금 40% 줄었다”

**SKT 데이터·음성 이용량은 늘어**



고객들이 공항에서 SK텔레콤의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3월 로밍 서비스 개편 이후 로밍 이용자 평균 요금이 기존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약 40% 절감됐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데이터·음성 로밍 이용량은 늘었다. 올해 로밍 이용 고객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 음성 로밍 사용량은 20%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 측은 “지역맞춤형 요금제 제공 국가 확대와 ‘전 세계 매일 3분 무료 통화’ 등 자동안심T로밍 도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SK텔레콤은 미주·유럽 패스를 출시해 지역 맞춤형 요금제 제공 국가를 기존 26개국에서 85개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SK텔레콤은 T로밍 고객이 방문하는 국가의 95%를 차지하는 세계 85개국서 지역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 중 지역 맞춤형 요금제 선택 비율은 65%로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자동 안심 T로밍 중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매일 3분 무료 통화’는 올 3월 이후 현재까지 19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많은 이달 중 210만 명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실시한 SK텔레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밍 이용 고객은 매일 3분 무료 통화 혜택을 주로 ▲국내 가족과 안부 전화 ▲한국에서 발신한 전화 수신 ▲현지 식당 문의·예약 등 용도로 이용했다. 업무상 통화보다는 주로 여행 중 간단한 통화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들어 로밍 이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만 18~29세 고객으로 로밍 이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만 18~29세 고객 증가는 지역 맞춤형 요금제를 이용 시 데이터 1GB를 추가로 제공받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티웨이항공 대구~러시아 ‘8만원대 특가’ 이벤트

오늘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대구발 러시아 노선의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대구에서 단독으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2개의 러시아 노선이다.

탐승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하바롭스크 8만 8590원부터 ▲블라디보스토크 9만 3710원부터다.

특히 2개의 러시아 노선을 운영하는 만

큼 티웨이항공의 다구간 여행을 이용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두 도시를 모두 즐기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특가 기간에 두 노선(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경우 야간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운임 3만원 할인 쿠폰과 위탁 수하물 2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쿠폰은 스마트 운임 이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성문 기자 ysw@